종단 운영체제 정비하고 불교 기반 넓혀

제37대 집행부 성과 | 종단 안정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지난 4년간 종단 운영의 안정 기반을 다지는 한편 선명상을 새로운 수행문화로 확산하고,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며 '힙불교' 흐름을 이끌었다.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내고 나눔과 연대의 영역도 넓혔다. 37대 집행부가 추진한 주요 종책과 활동 성과를 짚어본다. 〈편집자주〉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종 총무원 제37대 집행부는 종단 운영 체제를 정비하고 수행자 복지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전승 기반을 넓히는 데 힘을 기울였다. 30년 만의 중앙종무기관 조직 개편을 비롯해 종단 직영 요양병원 개원, 문화유산관람료 제도 개선, 국가무형유산 지정 등 시대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시도도 이어졌다. 종단 내부의 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불교의 공익적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와의 접점을 넓혀온 시간으로 평가된다.

30년 만의 조직개편…미래전략 기능 강화

제37대 집행부는 종단개혁 30주년을 맞아 중앙종무기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유지돼온 총무원·포교원·교육원의 삼원 체제를 총무원 일원 체제로 통합한 것이다. 삼원으로 분산된 조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과 포교를 비롯한 종무행정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조직개편과 함께 종단의 연구와 미래전략, 대사회 소통 기능도 별도 조직으로 강화했다. 조계종연구소와 미래본부, 미디어홍보실을 신설해 종단 현안을 연구하고 장기적인 종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미래전략과 불교계 안팎의 소통·홍보를 담당하도록 했다.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출범한 조계종연구소는 분산돼 있던 연구 기능을 통합한 종단 싱크탱크다. 사부대중이 가진 아이디어를 종단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종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했으며, 포살을 통한 지계 중심의 신행 회복을 제안한 '재가자 포살 실행 프로그램'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미디어홍보실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일상이 된 시대에 맞춰 대중과의 소통 방식도 넓혔다. 공식 유튜브 채널 '대한불교조계종'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불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중과 눈높이에서 소통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는 6만7000여 명,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1만 명을 앞두고 있다.

제37대 집행부의 핵심 종책 사업을 전담한 미래본부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주도했다.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선명상 대중화, 미래시대 성장과 인재 양성 등을 중심으로 한국불교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수행자 복지, 제도적 지원 넘어 돌봄으로

수행자 복지는 제도적 지원을 넘어 실제 돌봄의 기반으로 확장됐다. 조계종은 2023년 5월 경기 안성에 종단 직영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을 개원했다. 최초의 종단 직영 요양병원으로, 스님들이 노후와 병고의 부담을 덜고 수행자로서의 위의를 지키며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다.

아미타불교요양병원은 감염병실과 치매병실 등을 갖추고 스님과 재가 환자에게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친환경 원예치료장을 운영하며 심신 회복을 돕는 치유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특히 입원 스님들은 조계종 승려복지회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다. 현재 200병상 이상의 규모를 갖추며 승려복지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진료비와 요양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가입 스님을 대상으로 보험료 인상분을 지원하는 등 복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24년 10월에는 '승려 노후 주거복지 정책토론회'를 마련해 초고령 승가에 대한 종단적 대비 방안을 논의했다. 출가에서 노후와 병고에 이르기까지 수행자의 삶을 완전 지원하는 복지체계를 구축·보완해온 것이다.



조계종은 2025년 4월 1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 삼원 통합 고불식'을 봉행했다.

삼원통합으로 종무행정 효율 강화
200여 병상 갖춘 요양병원도 운영
사찰음식 등 국가유산 지정 이끌어

문화유산 보존 · 관리 뒷받침한 제도 개선

불교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사찰 관련 제도 개선도 주요 성과다.

조계종은 2023년 5월 4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해인사·불국사 등 전국 64개 주요 사찰의 문화유산관람료를 전면 감면했다. 관람료 감면으로 국민의 관람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해온 사찰의 역할에 대한 국가 지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통사찰 전기료 지원도 사찰이 수행과 신행, 문화유산 보존을 함께 담당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한 사례다. 다만 현재 지원 대상이 국가유산 보유 사찰로 한정돼 전통사찰 전체의 전기요금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밖에도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국립공원 내 전통사찰과 사찰림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매장문화재법 개정을 통해 사찰 소유 건조물 내부에서 발견된 성보의 소유권을 명확히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고, 전통사찰 경내 토지의 지목 용도 조정과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국가무형유산 지정으로 전승 기반 확대

불교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기반도 한층 넓어졌다.

조계종은 2025년 3월 6일 경기도 양평에 불교문화유산보존센터를 개관했다. 종단 핵심사업 중 하나인 보존센터는 2013년 4월 사업계획이 수립된 이후, 2017년부터 본격적인 건립을 시작했다. 2022년 착공해 2023년 상량식을 거쳐 2024년 12월 준공을 완료했다. 총 사업비 195억원이 투입된 보전센터 건립은 국가유산청의 지원을 비롯해 경기도·양평군의 협력으로 조성됐다. 양평 부지는 제25교구본사 봉선사와 용문사의 기부로 마련돼 의미를 더했다.

용문산 아래인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 45-22에 위치한 보존센터는 건축면적 1889㎡(571평), 연면적 6769(2048평) 규모로 지하 2층, 지상 2층으로 건립됐다. 국내 최고 시설을 갖춘 수장고를 비롯해 재질별 보존처리실, 전시실, 연구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국내 최초로 대형불화 조사와 보존처리를 위한 공간을 마련해 불교문화유산의 특성에 맞춘 조사·연구와 보존처리가 가능해졌다.

사찰음식은 2025년 5월 19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은 불교 전래 이후 발전해오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않는다'는 불교의 불살생 원칙과 생명 존중의 철학적 가치를 음식으로 구현해 고유한 음식문화를 형성했다"면서 "현재에도 사찰 내에서 왕성히 전승되고 있으며, 전통적인 조리법을 유지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확장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서 지정 가치를 인정했다"고 지정 이유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사찰음식'이 각 사찰마다 다양한 조리법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스님들을 중심으로 사찰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집단 전승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같은 해 7월 15일에는 '봉은사 생전예수재'가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됐다. 생전예수재는 살아 있을 때 미리 공덕을 닦아 사후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불교 의례다.

'봉은사 생전예수재'는 〈동국세시기〉에 19세기 중반 윤달의 대표적인 풍습으로 언급되는 등 역사성, 학술성, 대표성이 확인돼 국가무형유산으로 최종 지정됐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사)생전예수재보존회는 봉은사를 비롯한 5개의 서울 소재 사찰들이 함께 참여해 2017년 6월 발족한 단체로, 재를 이끌어나가는 연행 능력 등이 전승에 필요한 기반과 기량, 전승 의지를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괴로움 벗어나는 길 선명상으로 열다

제37대 집행부 성과 | 선명상 대중화

조계종 총무원 제37대 집행부는 현대사회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 속에서 국민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선명상 대중화'를 주요 종책으로 추진했다. 불교 전통 수행인 간화선을 바탕으로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지도를 양성하는 한편, 국제선명상대회와 국내외 교류, 지역 거점 조성 등을 통해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하는 '마음 안보' 수행법으로 확산해 왔다.

국민 마음 평안 위해 '선명상' 추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022년 취임 직후부터 선명상의 대중화를 강조해 왔다. 스님은 "불교에서 철저히 인과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한다"면서 "괴로움의 인과를 벗어나는 최선의 방법은 선명상"이라고 강조하며 선명상을 현대인의 마음 수행법으로 제시했다.

총무원에 미래본부를 설치하고 국내외 불교계와 비종교 분야 명상 프로그램과 명상센터를 조사해 선명상 대중화를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했다. 불교 수행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인이 쉽게 접근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준비였다.

2023년에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를 중심으로 선명상 대중화의 기반 마련에 나섰다. '천년을 세우다'는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사업과 선명상 대중화, 미래세대 인재양성 등을 아우르는 종합 불사다.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 교구본사와 주요 사찰, 신도, 포교단체, 개인 후원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한편 선명상 확산을 위한 기금도 모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명상을 종단 차원의 지속 사업으로 추진할 토대를 마련했다.

'하루 5분 선명상' 일상 실천 제안

취임 2년 차를 맞은 2024년에는 선명상 대중화가 구체적인 사업으로 본격화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는 짧은 시간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한 영상 '행복으로 가는 선명상'이 처음 공개됐고, 선명상 안내서와 애플리케이션, 홈페이지를 마련해 대중의 접근성을 높였다. 6월부터 8월까지는 사회 각계 리더를 대상으로 선명상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참여 기회도 확대했다.

특히 9월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내외 명상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24 국제선명상대회'는 선명상을 국민적 관심사로 확장한 자리였다. 당시 진우 스님은 직접 단상에 올라 "기술발전과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마음의 고통을 치유할 수 없다"며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실천으로 '하루 5분 선명상'을 제안했다. 이날 3만5000여 명이 5분간 선명상을 체험하며 대중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10월 1일 폐막식에서는 전국 선명상센터 운영, 유엔 차원의 세계 명상의 날 지정 등을 제안하는 결의문도 채택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미국 뉴욕에서 '2024 한-미 전통불교문화교류'를 열고 K-선명상과 한국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렸다. 120여 명의 방미단이 참여한 교류 행사에서는 선명상을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내면의 평화를 위한 수행법으로 소개하며 국제적인 확산 가능성을 모색했다.

프로그램 확대하고 지도자 양성

2025년에는 선명상 프로그램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전국적 확산이 진행됐다. 스님과 재가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선명상위원회를 출범하고 지도자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을 병행했다. 그 결과 선명상 프로그램은 5분 실천형부터 1시간 과정, 1박 2일·2박 3일 체험형, 4주 과정 등으로 다양화됐다.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지도법사와 지도사 양성에도 나섰다.

국제선명상대회는 전국 사찰과 지역으로 확산됐다. 4월 1일 서울 봉은사에서 개막한 대회는 전국 지역 선명상대회를 거쳐 10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와 폐막식까지 7개월간 이어졌다. 컨퍼런스에서는 선명상과 교육의 접목 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명상의 사회적 확장 가능성을 모색했다. 대회 기간 총 35만 명이 참여했다.

선명상 세계화를 위한 활동도 이어졌다. '세계명상의 날 한국위원회'가 출범해 세계 명상 네트워크와의 연대 기반을 마련했으며,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불국사 배우자 행사에서는 각국 정상 배우자들에게 선명상을 소개했다. 선명상이 한국불교를 알리는 문화교류의 수단이자 현대인의 마음건강을 위한 실천법으로 소개되는 계기가 됐다.



조계종이 지난 4월 개최한 '2026 국제선명상대회'는 'AI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진우 스님, '하루 5분 선명상' 제안
선명상위원회 출범으로 보급 체계화
선명상·공교육 접목 위한 정책 검토

선명상 중앙본부 설치 · 국제대회 개최

2026년에는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를 설치, 종단 차원의 조직 기반을 마련했다. '국민평안 선명상중앙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제정·공포하고 선명상 프로그램 연구·개발, 지도자 양성 및 교육, 연구·학술 지원, 국내외 단체·기관과의 교류협력 등을 주요 업무로 정했다.

선명상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프로그램과 지역 행사도 이어졌다. 4월 열린 '2026 국제선명상대회'는 'AI시대의 선명상'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회 기간 5만여 명이 행사장을 찾고 8500여 명이 선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요가와 사경, 선태극권, 공 사운드 배스, 펫로스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선명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입증했다.

공주·세종·대구·울산·영덕·부산·영암·장성 등 전국 9개 지역에서도 선명상대회가 열려 지역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선명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서울 · 영덕에 '치유센터' 거점 마련

도심과 지역에서 일상적으로 선명상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됐다. 7월 6일부터 서울 남산 충정사에서는 선명상 치유센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 서울시민과 직장인,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7월 프로그램에는 500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7월 13일까지 8일간 진행된 13개 프로그램에 253명이 참여했다.

7월 22일에는 영덕 장육사 인근에 '나옹왕사 선명상치유센터'를 개원했다. 선명상을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전통문화, 웰니스 관광을 연계하는 지역 거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 현장 접목 등 '국민운동' 확산

교육 현장에서도 선명상 기반 교육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학생과 교사의 마음건강, 교육공동체 회복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혜주 스님(동국대 WISE캠퍼스 아동인성교육연구소장)이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회와 서울교육위원회 마음건강 분야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공교육에 선명상을 접목하기 위한 정책적 검토가 시작됐다. 김내영 기자